

# 해봄집

2021년 성남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활동집



성남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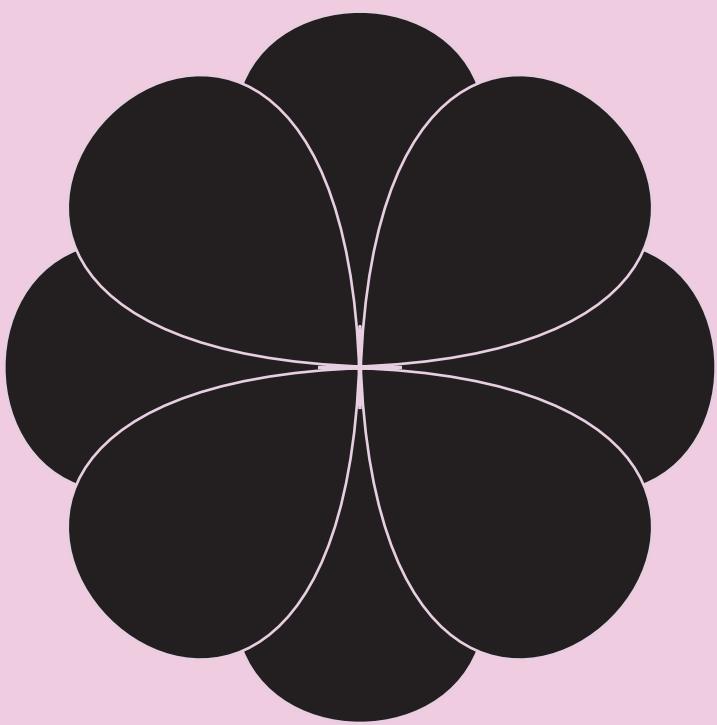


# 해봄집

2021년 성남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활동집

성남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청  
년  
이  
봄



# 들어가는 말

3

20

33

172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봄 직한 ‘상상’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도 지겹지 않을 친구 **3**명 정도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영원했으면 또 얼마나 행복할지 말입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도 해봄 직합니다.

친구 **20**명과 함께라면 뭔들 못해보겠나!!!

정말 모든 걸 다 이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불끈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삶 속에서,

때로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현실’의 고난으로 ‘영원’은 꿈이 되기도 하고

에휴, 나 하나 잘 살아내려, 용기보다는 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봄집’에서는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과 **33**팀 **172**명의 성남 청년들과 함께,

한 번쯤 해봄 직했을 그 ‘상상’을

‘봄’의 기운으로 따뜻하게 품어온 삶의 이야기를 녹여보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을 내일과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기쁨입니다.

# 목차

●●● 공동체	페이지
성남마을직대당(공부하는 직장인)	1
모두의 마을(도시재생)	3
김치 카레(외국인 문화 교류)	5
사맛(브라이덜 샤워 기획)	7
장례희망(장례 문화 인식 개선)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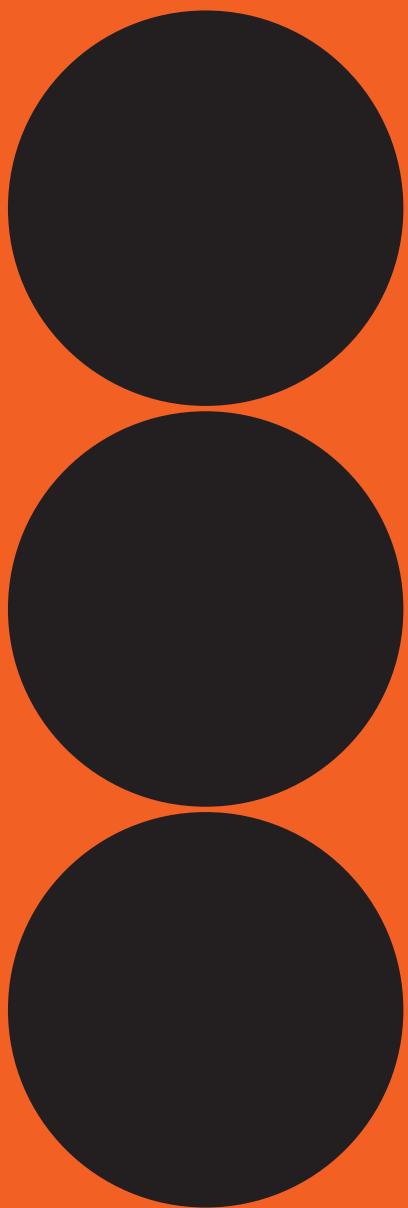
❖❖❖ 복지/환경	페이지
re:sight(시각장애인 의류 문화)	12
루케테(자립지원청년 콘텐츠)	14
D.N.A(1인가구식습관 개선)	16
프룻프룻(못난이 농산물 제품)	18
gather, together!(업사이클)	20
오르막길 내리막길(줍깅)	24
줍줍이(줍깅)	26
견청지간(유기견 봉사활동)	28

<b>◆ 문화예술</b>	<b>페이지</b>
리좀(서간문 수필집 제작)	29
청춘기록(여행 에세이 제작)	31
하느바람(음악 밴드 운영)	33
너랑(영화 색채 콘텐츠 제작)	35
아다도(음료 레시피 개발)	37

<b>◆★● 취미공유</b>	<b>페이지</b>
농땡이연구소(보드게임)	40
N사이드(독서 및 문화 체험)	42
똑소리(독서기반 취미 공유)	44
선덕선덕 우리산행(등산)	46
김이박상궁(맛집 탐방)	48
아우름(MBTI 기반 취미 공유)	50
김장권장(취미 공유)	52
마음지기(문화기획팀 취미 공유)	54
밀레니얼끌롱(취미 공유)	56
삼태원클래스(취미 공유 영상)	58



공동체



# 성남마을직대딩

## ● 소개

공부하는 직장인이라는 비슷한 환경의 또래 청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청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 ● 해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인 ‘휴일제작소’를 3회 진행하였고, 시험 및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야간 스터디 모임인 ‘야간작업실’ 정규 모임을 6회 진행했습니다. 상시스터디의 경우 10회 이상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단체방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성남시 청년 대상의 정책 및 사업 정보 전달, 질의 응답(재직자특별전형 입시, 취업, 학교생활 등), 친목 모임(멘토멘티, 예비 새내기, 대학별, 직종별 등)을 위한 창구로 운영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한 계정이 총 42명에 달했고, 오픈 카톡방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한 인원은 71명에 이르렀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 및 대학생부터 직장인 까지 초기~후기 청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만큼 성남시 내의 특화된 청년층의 플랫폼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학업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소통 및 활동의 장으로써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무력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고취했다고 생각합니다.



# 성남마을직대딩

## ● 느낀점

코로나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목모임을 할 수 있던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취미가 없거나, 회사 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워낙 커기 때문에 취미나 휴식이 후순위로 밀리곤 했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금전적인 걱정 없이 취미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부딪혀 봐야겠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 전공을 가진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상생할 수 있는 모임이라 저희를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작업실’ 진행 중에는 공부하다가 졸림을 극복하고자 본인들의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각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를 소개했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없는 스터디원은 집에 있는 강아지 인형을 가져오는 바람에 다같이 웃었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려고 합니다. 새내기 및 특성화고등학교 입시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하고, 취업, 직무, 대학 입시, 시험 족보, 꿀팁 등 유용한 청년 소식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예비 새내기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중점으로 홍보하였는데, 이후에는 대면 친목모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활동한 적이 한번밖에 없어서 매우 아쉬웠던 만큼,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패러글라이딩처럼 더욱 액티브한 활동에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직장인과 대학생 관련 커뮤니티와도 더욱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생 커뮤니티 내에 동아리 역시 창설해보려 합니다.



# 모두의 마을

## ● 소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전국 각지의 도시 재생 및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답사하고 탐구하는 한편, 마을 공동체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을 알리는 도시 재생 커뮤니티

## ● 해봄

서울시 일대(필동, 홍제동, 중림동, 합정동)의 도시 재생 연구 프로그램을 위하여 서울 1인 청년 가구 대상 거주실태 및 소속감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필동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인근 지역에 포스터를 부착해 보았습니다. 필동과 홍제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관한 성과 공유회를 8월 14일에 진행하였으며, 9월부터는 3기 회원을 주축으로 암사동, 상도 4동, 중림동, 합정동 일대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합정동, 중림동 프로그램 팀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기획안 초안을 작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10월 31일에는 성남의 도시 재생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며 성남 내의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모두의 마을

## ● 느낀점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살리기’라는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지역을 답사하며 마을 공동체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소생시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답사지 공부도 하고, 다양한 지역을 답사 다니며 재생지를 찾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열심히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할 모을이 리크루팅, 그들과 함께한 1,2차 워크샵, 답사 활동까지, 청년이 해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완성해나갈 때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성취감은 저희가 ‘모두의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이 어떠한 것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 활동을 기획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만들어갈 것인지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배워가며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모두의 마을’은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모여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살리기’를 목표로, 여러 지역을 답사하며 공동체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시민과 연대하여 마을을 소생시키는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입니다.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보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문화’ 그리고 ‘역사’에 집중하여 지역민에겐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동네에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동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민 프로그램을 발굴, 창작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색을 입힌 주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이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청년이, 해봄’ 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을 공부하고 다양한 지역을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공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변화한 도시라도, 재생이 잘된 마을이라도, 재생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의 마을은 수도권 구석구석을 오가며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재생이 필요한 동네를 찾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단체를 보완하고 이끌어 나갈 것이며 구석구석 모두의 마을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단체를 지속할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가 지역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이는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 청년의 주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청년 커뮤니티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해결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전후 청년들의 인식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청년의 지역 정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치 카레

## ● 소개

인도-파키스탄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계 외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한 폐쇄성이 강한 한편, 인도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인도에 관한 한국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우울증 증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인도-파키스탄계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문화 교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 커뮤니티

## ● 해봄

활동 계획은 크게 외국인들간의 교류와 문화간 교류로 나뉩니다. 먼저 외국인들, 특히나 인도-파키스탄계 한국 거주 외국인들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 시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중국계 혹은 서구 출신입니다. 인도-파키스탄계 외국인들은 문화적 특성이 이들과 다르고,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교류기반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인도-파키스탄계 한국 거주 외국인들과 교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효과로 우울증을 겪었던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우울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교류 방식에 있어서는 요가를 매개로 하고자 했습니다. 요가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인도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운동이며 정신적으로도 유익한 활동인 만큼 요가를 통해 문화 교류를 활동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여 가능한 시설이 사라지고, 부담이 되어 계획만큼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김치 카레

## ● 느낀점

청년이 해봄을 통해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온라인 요가를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점이 떠오르네요. 코로나가 한창 심해지는 시기다 보니 활동을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인들에게 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문화교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청년이 해봄을 통해 경제적 부담없이 더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나아질려고 하면 심해지고 나아지려고하면 심해지기를 반복하여 모임 구성원들 중 모두가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하게는 우울증부터 심한 구성원은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해봄을 통해 사람간의 교류가 늘어남으로 여러 정신적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팀장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인해 여러 약물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팀 활동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구성원들 대다수와 외부인원들 대다수 모두 고국에 가족을 두고 생활하는 지라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이 많이 틀어진 점은 아쉬웠습니다. 구성원들이 근 6개월간 코로나 검사를 한 횟수가 인당 4회가 넘을 정도로 코로나 검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정이 변경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모임의 마지막은 할로윈 파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외국인이 할로윈 기간 중 이태원에 가면 추방 당할 수 있다는 기사가 떠돌아서 많은 구성원이 겁을 먹고 오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는 하지만 실망을 감추기는 힘들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여러 모임을 반복하면서 한국에서 문화교류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요가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생각 보다 많은 한국 친구들이 문화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활동을 통해 구성원간 유대감을 다지어 서로에게 의지 할 수 있는 모임이 되고 싶습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더욱 교류를 늘려서 많은 한국인들의 인도나 파키스탄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데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한국에 못가본 곳이 많은데 그 방방곡곡에 좀더 탐험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도-파키스탄뿐 아니라 한국에 많은 마이너 국가 출신 외국인 학생들이 좀더 연합해서 서로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방향으로 모임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늘어가고 있는 동남아 출신 대학생의 경우 동남아 출신 공장 노동자들로 인해 한국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차별과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 중앙 아시아에서 온 다른 대학생들 또한 러시아출신 공장 노동자나 성매매 종사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 출신 유학생들처럼 규모가 큰 것도 아니라서 항상 겉돌곤 합니다. 이런 마이너 국가들을 아우르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 저희 그룹의 비전입니다.



# 사맛 — 우정의 색을 담은 브라이덜 샤워

## ● 소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에 불참하는 아쉬운 친구를 위해 시작했던 소규모의 아주 사적인 파티에서 발견한 즐거움을 성남 청년들과 나누기 위한 브라이덜 샤워 프로젝트

## ● 해봄

본래 성남시 내 관련 사업체 조사 및 수요조사 DB 작업을 마친 후 프로젝트 의뢰인을 선정해 의뢰인 맞춤 브라이덜 샤워를 기획하고 진행하려 했으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연장으로 진행이 무산되어 소정의 프로그램 운영 물품과 친구들과 식사자리에 축하를 전하며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존의 기획안 의도를 유지하는 창업 아이템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자가 없어도 파티 참여자들 만으로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뱃과 사다리 게임을 모티브로 한 브라이덜샤워 컨셉의 보드게임을 두 달여간 기획·개발하였습니다. 구성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팀원을 포함한 지인(2020년 브라이덜샤워 참여자 및 배우)을 대상으로 가상의 브라이덜샤워 파티를 시뮬레이션하며 개발한 보드게임의 현장 적용성과 흥미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연말까지 기획안과 시제품/구성품을 보완해 22년 소량으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맛 ————— 우정의 색을 담은 브라이덜 샤워

## ● 느낀점

아마도 이번 활동만큼 여러번 좌절하고 포기한 활동이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있는 주말에 만나면 당장 하루 이틀 뒤에 방역지침이 바뀌는 걸 우려하며 세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했습니다. (1)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2) 강화된다면, (3) 다행히도 완화 된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크게 상황을 뒤흔들다보니 내부에서 결정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적어져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으나,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줌, 라이브톡, 구글시트 공유 등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많아진 세상에서 모임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얼리어답터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잘 다루는 사람들 앞에서 야 꺼낼 수 없는 말이겠지만,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늘었다 싶습니다. 이용 매체 외에도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해온 것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역할이나눠져있어 그것을 침범하기 어려운 무언의 선이 있었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서 경계가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문화/파티/청년과 연결된 활동을 하면서 목 적성보다는 고리와 같은 관계성을 팀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예정된 시뮬레이션 파티부터 잘해내고 싶고, 그러기 위한 많은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하고, 계획짜고, 보드게임 판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참여자를 확정지어야 하고, 진행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조명도 어떤 것을 쓸지 한번 더 체크해야 하고, 위드코로나 단계가 언제 또 완화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해야 하는 활동이 마무리 되고나면 지속을 위한 방향성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지트를 마련하는 것 역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빌려 쓰는게 아닌,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에 사맛과 함께 활동했던 언노운 멤버들 모두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드게임이나 공간으로 팀끼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장례희망 —— 알쓸신장

## ● 소개

청년들에게는 생소하고 다소 냉소적인 주제인 장례 문화의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죽음관과 웰엔딩에 관한 관심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 ● 해봄

장례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 판촉물인 스티커와 메모지, 엽서를 제작해 성남시와 서울시 내의 유동 인구 많은 곳에 부착 및 배부하였습니다. 한편 장례 관련 분야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에 관한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성남시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수련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온라인 활동으로는 장례희망(Funeral Hope)라는 이름으로 SNS 중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개설해서 활동 내역을 아카이빙하였으며, 장례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업로드하였습니다.



# 장례희망 — 알쓸신장

## ● 느낀점

팀원 전원이 장례지도학과 학생이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드 뉴스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제작하면서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웠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상기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리플렛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많은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역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줄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의외로 웨일딩이나 무연고 죽음에 대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례문화 인식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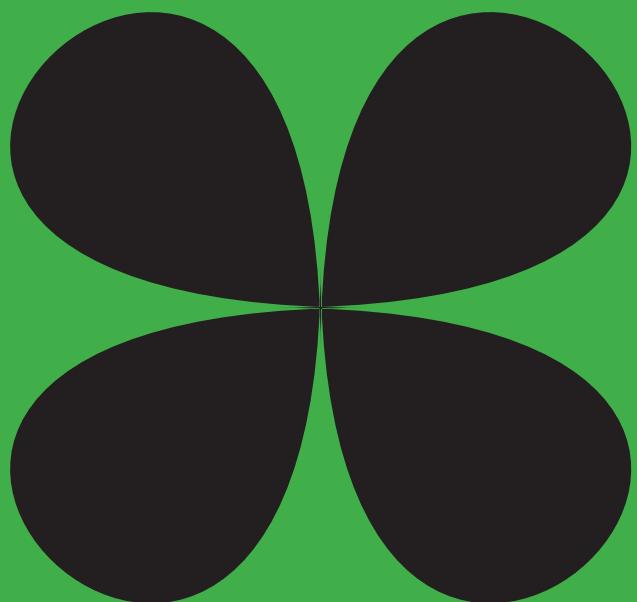
## ● 앞으로의 방향성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무연고, 웨일딩, 고독사, 장례관련 미디어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잘 몰랐던 사실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리지 못한 주제들, 너무 얕게 설명한 주제들이 많고 이를 다 설명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SNS를 통해 더욱 다양한 장례 및 죽음에 대한 뉴스를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초기에 계획하였으나 리플렛으로 변경하였던 매거진 제작이나 장례 및 죽음에 대한 동화책 제작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래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생소하고 냉소적인 주제, 장례 분야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죽음관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교육을 이끌어낸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일종의 교사가 되어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죽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죽음관 형성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일정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죽음관 교실을 열어보려 합니다. 도전해봄 프로젝트가 끝나도 SNS는 주기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복지  
/  
환경



# re:sight

## ● 소개

사회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각 장애인이 의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류 문화 확립 프로젝트

## ● 해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의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맞춤 스타일리스트 서비스를 기획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의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비슷한 색 계열의 옷 구분이 어렵거나 양말과 같이 짹이 있는 의류의 짹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옷을 입을 때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점자 양말 제품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배리어프리 양말의 시제품을 제작한 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펀딩을 시작해 성공리에 마감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 및 인스타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제품 기부처를 조사해 기부식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언론 인터뷰 촬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re:sight

## ● 느낀점

청년이 해봄 활동은 저희 모임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초반에 열정을 불태워 발로 뛰었는데 열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청년이 해봄에 합격하게 되었고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그동안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들을 실현에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절할 뻔하던 찰나 여러 지원을 받아 다시 열정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 역시도 청년에게는 많은 잠재력이 있고, 이것을 누군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러한 잠재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실행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자금이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그 아이디어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청년이 해봄처럼 목표 실현을 도와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배리어프리 의류군을 확장하는 것을 첫 번째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인 '배리어프리 의류군 확장'에 대하여 현재 계획 구상중이며, 2021년 마지막 목표로 다음 배리어프리 의류 품목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후에는 시각장애인 대상 전문 판매처와 협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최초 계획하였던 것처럼 시각장애인 대상 맞춤 스타일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펀딩 기획부터 제품 제작 그리고 리워드 발송까지 펀딩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얻을 수 있었던 실무적인 경험과 직접 대상자를 만나 보며 파악할 수 있었던, 예상이 아닌 실질적인 니즈를 합쳐 더 나아진 제품으로 배리어프리 의류 문화를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 루케테

## ● 소개

한 해 2500명이 넘는 청년이들이 보호소나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는데, 자립 지원 청년에 관한 관심조차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들의 현실을 담은 영화와 카드뉴스를 제작한 프로젝트

## ● 해봄

5월부터 6월까지는 영화 제작을 위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촬영지 사전 답사와 시나리오 작성, 소품 준비가 이루어졌고 영화 촬영 및 편집은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진행한 사전조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자립 지원 청년에 대한 단편적인 관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팀원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영화에 담아내고자 노력했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을 수도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며 자극적인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지 않고 순화하는 편집의 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충무로 단편 영화제에, 9월에는 동대문 단편 영화제와 의정부 청소년 영화제에 제작한 영화를 출품했습니다. 의정부 청소년 영화제에서 실시한 유튜브 상영을 통해 특정 지역외의 관객들에게도 자립 지원 청년의 현실과 이들에게 필요한 관심, 정책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고, 현재 1회를 청년이 봄 인스타에 게시한 상태입니다.



# 루케테

## ● 느낀점

초반에는 영화의 목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할지, 어떤 주제로 극을 이끌어가야할지도 몰랐으나,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립 지원 청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자립 지원 청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팀원도, 활동을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된 팀원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이 혹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홀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립 지원 청년들의 힘듦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있던 주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 처음이었던 만큼 기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영화제마다 요구하는 러닝타임이 다르다는 것 역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로 단편 영화제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편집을 마쳤는데, 의정부 청소년 영화제는 러닝타임이 10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감 이틀 전에 급하게 30분 분량의 영화를 10분으로 줄이느라 날밤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컷지만, 결국 해내는 것을 보고 우리의 팀워크가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고등학생때부터 알던 사이라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속속들이 알기때문에 상대가 지쳐보일 때 알아서 챙겨주는 등의 사소한 행동들이 팀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 서로의 배려 덕분에 큰 다툼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영화나 카드 뉴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결과물이기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메시지나 말, 표정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혼자서 해내야 하는 활동이 아니었기에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남에게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팀을 이끄는 것보다 함께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 그로 인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해봄’을 통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팀원들 모두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제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더 다양한 영화제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립 지원 청년에 관해서만 조사하고 영화로 담아냈지만, 다음에는 한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융합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화 제작 활동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는 때에 무조건 같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팀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활동에서 맡았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여러모로 ‘준비’와 ‘경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D.N.A

## ● 소개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지기 쉬운 1인 가구의 식습관 특징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 ● 해봄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의 식생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의 방향성을 정하고, 원푸드 레시피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1인 청년 기구를 위한 레시피북 제작을 위해 7월에는 새롭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식습관과 레시피북 선호도 조사에 기반하여 수록할 레시피를 선정하고, 독자들이 식단일기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책의 테마를 다이어리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의 식단을 한 눈에 보고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를 기획하였으며 현재 크라우드 펀딩 승인을 대기 중입니다.



## ● 느낀점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긴 호흡의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기도 했고, 기간 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 매 회의마다 주고 받았던 피드백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기획한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예정보다 많은 회의가 늦은 시간에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팀원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려온 과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팀원 모두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솔직하게 얘기함에 따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활동의 마지막 달 까지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을 직접 만나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영상 제작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다가갈 수 있어 색다른 경험 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꾸준한 팀원들의 모습에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텀블벅에서 레시피 다이어리 펀딩기간을 마친 후 며칠 후, 다이어리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작성해 본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DNA의 다이어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줬는지에 관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펀딩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펀딩 오픈 후에는 성공을 위해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려 합니다.



# 프룻프룻

## ● 소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에 가치를 더하여 농가 소득 증진 및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 프로젝트

## ● 해봄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다가 이전에 없었던, 보다 많은 못난이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밀키트’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를 개발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재료를 구입해 조리 테스트와 수정 과정을 거쳐 ‘못난이 채개장 밀키트’ 레시피를 개발하였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를 통하여 펀딩을 진행하였으며, 펀딩 날짜에 맞추어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농산물 공급처와 연락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835%의 높은 달성을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약 250개의 못난이 채개장 밀키트 제작 및 판매를 통하여 총 4,179,250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프룻프룻

## ● 느낀점

청년이 해봄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근본적인 자금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고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면서 자금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프로젝트의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전, 항상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하는지, 없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같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없었다면 프룻프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아마 어려운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활동을 기록하며, 더 나아진 모습을 기록에 담길 원한 결과, 이전에는 놓치고 넘어갈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프로젝트의 사후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열정을 갖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팀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못난이 채개장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아깝게 버려지는 우리 농산물의 상태를 알게되었고, 그렇게 버려질 수 있었던 농산물들을 활용하여 맛있는 채개장 밀키트를 만들고 좋은 반응을 관찰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펀딩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소개하며,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 농가와 자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못난이 농산물 활용 제품군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못난이 주스’ 레시피를 개발한 후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룻프룻의 최종 목표는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의 외관 위주 소비습관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기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예: 유치원,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체험 교육 진행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 gather, together!

## ● 소개

환경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upcycle 및 recycle 인식 개선 프로젝트

## ● 해봄

일회용컵 업사이클 화분키트를 제작 및 배포하고 업사이클 물품 후기 영상 제작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팀과 개인 모두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upcycle과 recycle에 대해 더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남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에게 환경을 위한 활동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팀의 활동을 보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분리수거를 더욱 꼼꼼하게 하는 등 사소한 생활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생각 없이 넘겼을 수도 있었을 문제점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 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스스로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초적인 생각에서 발전하여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라는 행동을 통해 팀원 모두가 환경 활동에 있어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 관련 활동을 업데이트하거나 버려지는 물건(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을 모아 다시 쓸 수 있게끔 업사이클링 화분 배포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환경을 위한 일이 얼마나 알차고 뿌듯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gather, together!

## ● 느낀점

최초 기획했던 일회용 수저 수거 캠페인과 재활용 체험부스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사전 연락으로 허락까지 받고, 부스 설치 장소를 찾으려 답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보낸 서류가 반려되었을 때 느낀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체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어 리사이클, 업사이클, 재활용법 등을 알려주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업사이클 사이트를 찾아 제품을 구매하여 후기 영상을 편집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활동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다양한 업사이클 물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예상보다 더 좋은 품질과 포장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점을 발견하며 많이 놀라기도 했고, 재미있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저희만 움직인다고 결코 단번에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작은 움직임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계획했던 재활용 체험 부스 활동, 도서관과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용품 만들기 활동 등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렸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gather, together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자 합니다. 팀원들의 사소한 환경을 위한 행동부터 카드뉴스 및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계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풀린다면 서울이나 수원을 벗어나서 더 많은 지역에서 gather, together! 이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에서 ‘클린올레’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달라진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법을 소개하는 등 더욱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오르막길 내리막길

## ● 소개

‘등산’과 ‘줍깅’을 결부하여 자연친화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하는 한편, 성남시의 자연을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홍보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치유하면서 주민 스스로 치유받는 선순환을 지속하고자 한 커뮤니티

## ● 해봄

초기 목표는 성남의 다양한 산, 공원, 탄천 등에서 줍깅 활동이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오월과 유월에는 남한산성, 청계산 일대를 오르며 줍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19 감염증 추세 심화로 인하여 기존의 등산 계획을 취소하고 서현역 공원에서 줍깅을 실시하였습니다. 칠월에는 서현역 공원에서 거의 쓰레기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일대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나 구월에 다시금 방문하였을 때는 이전보다 많은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줍깅 활동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챌린지 참여자들이 자신이 방문한 성남시 탄천, 산, 공원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줍깅 활동을 통해 성남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공원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성남의 탄천, 산, 공원을 홍보하는데도 이바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오르막길 내리막길

## ● 느낀점

이번 청년이, 해봄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희 모임은 자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줍깅 활동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며, 지구의 환경문제는 각각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시민이지만 성남에 이렇게 많은 산, 탄천, 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성남의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앞으로도 저희 오르막길 내리막길 팀은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성남의 다양한 산, 탄천, 공원을 다니며 줍깅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 팀원을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줍줍이

## ● 소개

줍깅(플로깅, 플로빙) 활동을 통하여 나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커뮤니티

## ● 해봄

총 9회차에 걸쳐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은 4회,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빙은 6회 이루어졌습니다. 플로깅 루트나 플로빙 지역을 선정한 후에는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매 회차 모임이 운영되었으며, 모임의 지속과 연계를 위하여 다음 회차 모임의 희망자와 관심도를 확인하는 것을 마무리 활동으로 진행하곤 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팀원 모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으며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SNS 게시를 통하여 플로깅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줍줍이

## ● 느낀점

활동 초반에는 막연히 생각했던 걸 실행으로 옮기기 까지의 어려움을 자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줍줍이 활동을 위한 필요물품을 준비하고 구입하면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줍줍이 활동을 하는 것을 주변인들도 알게 됨에 따라 좋은 취지의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물품을 지원해주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지역에서 국한되지 않고 활동 반경을 넓혀 간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팀원 중 민고미님은 개별 플로깅 활동을 북한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담배꽁초가 많았으며 페트병 뚜껑과 유리조각, 일회용 마스크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금방 비닐봉지 하나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플로깅 활동을 보고 지나가시는 등산객분들께서 좋은 일 한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뿐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기 전에 한번은 생각하였으면 좋겠고, 플로깅 활동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생기면 좋겠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월 1~2회 일정한 시간 동안 플로깅을 진행하고 분기별 챌린지를 진행하는 활동을 이후로도 유지하려 합니다. 바다를 향한 플로깅 역시 월 1~2회 연습을 통하여 개인 역량을 신장할 예정이며, 길게 숨 참기 챌린지, 특별 해양쓰레기 주워서 뽐내기, 나의 최대 수심 뽐내기를 진행하여 줍줍이 능력자를 선정하는 등 재미있는 활동으로 줍줍이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유지하는 한편, SNS(인스타그램) 활동을 통하여 팀 내 활동물을 게시하고 리그램 이벤트도 진행하여 팀을 발전시켜 가려 합니다.



# 견청지간 — 유기견봉사당

## ● 소개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하여 유기견 인식과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 ● 해봄

유기견 봉사활동을 계획해 봉사활동에서 입을 단체복을 제작하고 유기견 보호소와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외부인을 받지 않는 곳이 증가하여 대안 활동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8월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여행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1회 방문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방문한 결과 반려동물 여행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을 편리한 여행으로 발전 및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8월부터 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SNS 매체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많은 콘텐츠가 있다보니 긴 내용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한계가 있다보니 팔로워를 모은 뒤 유튜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커뮤니티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과 8월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성 있는 커뮤니티로 거듭나기 위해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 행동교정, 반려동물 식품관리사를 취득하였습니다.



# 견청지간 —— 유기견봉사당

## ● 느낀점

원래 대면모임을 기준으로 기획하고 운영되려던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원래 하려던 계획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심지어 8월부터는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해 모임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처음 겪는 조치로 인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방황을 한 것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각보다 잘못된 상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였고, 무심코 지나치던 반려동물과 유기견에게 이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게 되어 새로운 인연을 통해 협업을 시도해보게 된 것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견청지간이 바라보는 지속가능성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견청지간이 추구하는 커뮤니티의 최종 종착역은 덕업일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수익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란 반려동물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아프다고 병원비로 인해 유기하거나, 나의 가족이 성가신다고 유기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빙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더 신중하게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키우는 문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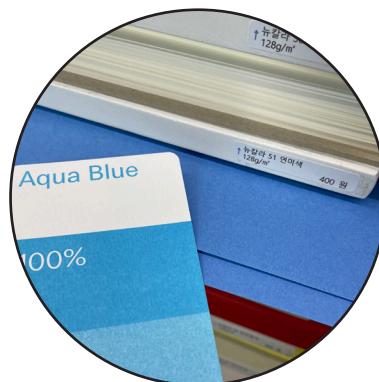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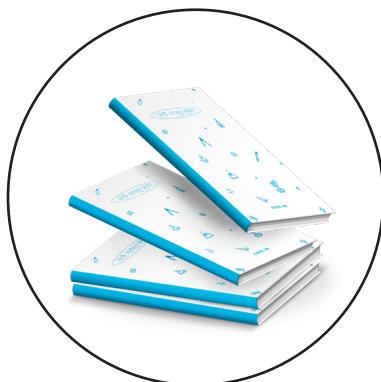
# 프로젝트 리좀 —— 아주 사적인 편지

## ● 소개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이 높아진 또래 청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한 참여형 독립출판물 프로젝트

## ● 해봄

지난 5월 독립출판물을 원고를 모집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독립출판물『아주 사적인 편지』제작 프로젝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서간문을 모집하였으며, 원고 작성 규칙은 가족, 친구, 반려동물, 자기 자신 등 편지를 보내고 싶은 누구든 수신인 삼아 편지를 쓰되 받는 이를 2인칭인 ‘너’로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알 수 없도록, 그리고 독자가 모든 편지를 자신에게 부쳐진 편지처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고 모집은 7월에 마감하였으며, 이후 모인 글의 교정·교열과 편집 디자인을 진행해 10월에 인쇄를 마쳤습니다. 총 100부가 제작되었으며 성남 시내 독립출판서점과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성남청년센터(신흥, 판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프로젝트 리좀 —— 아주 사적인 편지

## ● 느낀점

기획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자신의 마음 건강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독립출판물이 ‘성남’이라는 공간에 주목한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라는 시간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고작을 모아 얹고, 지난번보다 더 꼼꼼하게 편집 과정을 마쳐 나온 책을 보니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유의미한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독립출판물 기획인 만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는 숙달된 점을 발견하기도 했고, 다음번에 더 발전하고 싶은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조금 더 정착되었고, 리좀만의 편집 매뉴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첫 독립출간물 발간 후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제작 시 그 피드백을 거의 다 반영하여 첫 발간물에 비해 확연히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종이와 인쇄소의 용어들에 좀 더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투고와 관련해서는 투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도 원고가 들어오기도 했고, 지난 독립출판물에 참여했던 분들 중 이번에도 연속해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독립출판물에 관한 만족감이나, 두 번째 독립출판물에 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독립출판물 제작 때에 비하여 투고 원고가 많아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었던 점은 기뻤지만,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프로젝트였던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투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긴 호흡으로 꼼꼼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완성도를 높인 점이 특히 기쁘고 뿌듯합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공간과 공감, 함께 겪은 시대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난 두 권에 이어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그리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 번째 독립출판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독립출판물 제작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참여자를 더 늘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대안적인 삶들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청춘기록 ————— 청록

## ● 소개

제주도 여행 에세이를 독립 출판하는 활동을 통해 출판 과정을 경험해보고 아마추어 작가가 되어 꿈을 실현해보는 커뮤니티

## ● 해봄

지난 6월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작성할 에세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에세이에 필요한 참고문헌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면서 짐필을 이어나가 7월에는 목차를 구성하고 초안 디자인과 배열을 검수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이르러 최종 원고를 작성한 후에는 원고 편집과 내지 디자인에 착수했고, 표지 디자인 최종 검수 과정을 거쳐 10월에 「제주, 그 푸르름을 기록하다」 책을 완성하고 제본했습니다.



# 청춘기록 — 청록

## ● 느낀점

청춘기록-청록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고, 이 활동을 마무리 하며 돌아보니 정말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매사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가감없이 내 주어 수월하게 협업 할 수 있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하기도 했지만,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모두 수용적인 말과 공감적 언어표현으로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곤 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어 팀워크도 끈끈해지고, 효능감과 성취감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활동으로 제주 여행기 에세이 쓰기에 도전하면서 추진력과 실행력, 그리고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완성하고 출판한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월별, 주별 세부계획을 설정해 팀원들과 추진력 있게 실행해오다보니 책을 정말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목표를 갖고 꾸준히 실행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제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작성하고, 내지를 정렬하며 아마추어 작가로 한걸음씩 나아간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서 성취해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막연한 꿈을 실현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본 다른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고 꿈을 현실화 할 용기를 얻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청춘기록-청록은 이번 첫 독립출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계속 협업하여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을 통해 출판 또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예정이며, 출판의 형태가 아니라도 팀원의 버킷리스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도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팀원 모두와 협의가 된다면, 뜻이 맞는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청춘기록-청록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느바람

## ● 소개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를 통해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한편, 합주를 통해 다양한 음악장르에 도전하고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음악 밴드 커뮤니티

## ● 해봄

악기 세션 별 멘토-멘티 레슨을 통해 신입부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주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해 합주 인원이 제한되었고,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하여 공간을 대여하거나 모임을 가지는 일이 어려워짐에 따라 합주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계획하였던 공연 및 비대면 프로젝트 ‘Feeling Spring Festival’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월과 7월, 9월 틈틈이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만큼의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악기 세션 별로 유동적인 만남을 마련해 멘토-멘티 별 연습을 진행해 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팀원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부터는 이행하지 못했던 활동 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합주와 연습을 진행해 12월이나 내년 1월달 중으로 공연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 하느바람

## ● 느낀점

음악 밴드 커뮤니티인 만큼 합주 곡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접할 수 있었고, 음악을 들을 때 보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 모두 다르듯이 합주곡을 선택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이 점차 능숙해진 것 같아 기쁩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희 커뮤니티 역시 신입생은 레슨과 합주를 통해 실력을 증진한 후, 다음 년도에는 중심이 되어 신입생을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해오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기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레슨을 진행하며 숙련도가 있는 부원은 다른 부원을 도와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악기를 처음 접해본 부원은 실력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참여하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속한 커뮤니티에 강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합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각기 멀리 흩어져있는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서 비교적 적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세션별 레슨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합주를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실시로 거리두기가 재편됨에 따라 인원 및 시설집합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합주를 속행하고, 나아가 공연도 계획해보려 합니다. 공연은 대략 12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하느바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두 가천대학교 학생인 점을 고려해 그에 맞춰 종강이후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공연 당일에는 온라인 송출 혹은 영상녹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측에 양해 및 협조 요청을 드려서 온라인 동시 송출을 진행하거나, 녹화영상을 센터 측에도 공유하여 커뮤니티를 확장해보려 합니다.



# 너랑 — 팔레트 오브 무비

## ● 소개

영화 속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색깔과 분위기 를 통해 청년들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

## ● 해봄

5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6편의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하였으며, 인터뷰와 조색에 관한 12개의 영상을 완성해 팔레트 오브 무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영화의 장면에서 색감을 찾아내고 찾아낸 색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 ‘컬러칩’을 선정함으로써, 영화와 영화의 색채를 통해 청년들의 감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컬러칩에 붙인 이름을 주제로 짧은 글을 써나갈 예정이며 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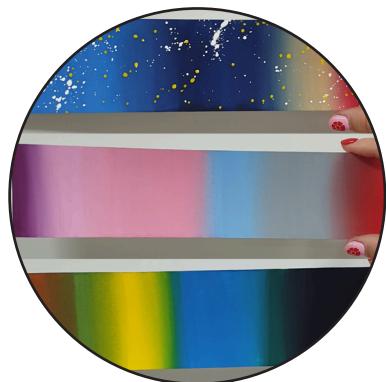
# 너랑 — 팔레트 오브 무비

## ● 느낀점

색채에 관심, 관련이 적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색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색이라는 색채 영역을 알리게 되어 좋았습니다. 촬영 패널을 모집하며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소재로 이야기 하며 서로의 새로운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생각을 공유하며 공통점이 반갑기도 했고, 차이점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생각을 만드는 데 매우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어 보게 됨에 따라 채널 개설과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구독자와 조회수, 댓글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활동을 이어나가며 개인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는 참여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내면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MZ세대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MZ세대의 공감을 얻는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기회를 갖고자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돋고 싶습니다. 팀 내에서는 2차 촬영과 영상 제작까지 완료한 후 3차 촬영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관련 공모사업에 추가 지원을 하거나 이미 만들어둔 유튜브 제작물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3차 촬영을 통해 채널을 활성화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팔레트오브 무비 초반 기획 당시, 잡지로의 확장도 고민해보았었고, 이 역시 충분한 데이터와 독자층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생 콘텐츠 제작과 함께 청년이봄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 또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활동을 통해 청년이봄의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아다도

## ● 소개

청년들이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봄으로써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레시피를 기획해 보는 커뮤니티

## ● 해봄

4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음료 연구 및 제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24개의 음료 레시피를 제작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며 그 중 19개의 레시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청년이봄 공유 주방을 이용해 음료 제조 프로그램도 총 3회 개최하여 아인슈페너, 가나슈를 이용한 초콜릿라떼, 달고나 라떼를 제작할 수 있는 키트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 아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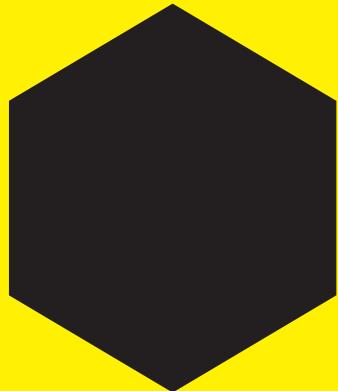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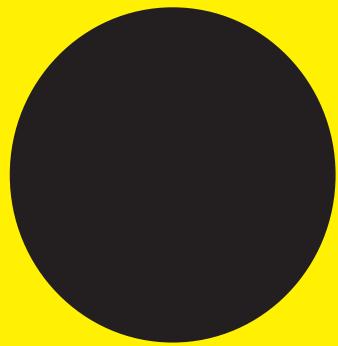
## ● 느낀점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던 팀원의 경우 음료의 제조 방법과 커피 추출 방식 등을 알지 못한 상태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레시피를 제작 할 수 있었고 평소에 먹던 커피의 추출 과정과 방식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근무 중인 팀원의 경우 다양한 음료를 제조해 보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개발해보면서 각 재료의 비율에 따라 맛의 변화가 확 느껴지는 것을 체감하여 볼 수 있었고, 평소보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팀을 지속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신체적 부상으로 활동이 어려운 팀원이 생기기도 하여 현재 팀으로는 향후 계획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적극성이 있는 팀원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개인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또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레시피 책자 제작 등으로 방향성을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코로나 19 추세가 안정화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일일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음료 제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추  
미  
공  
유



# 농땡이연구소

## ● 소개

보드게임을 통해 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고, 청년들의 삶을 나누며 지역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 ● 해봄

총 5회의 내부 활동을 진행하며 보드게임과 청년 문화를 연구하고, 오픈모임을 기획하고 홍보했습니다. 본래 3회의 오픈모임을 열어 다양한 지역청년들과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로 인하여 10월 31일에 ‘올나잇 보드게임’의 형태로 1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 덕분에 그간 팀원들과 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보드게임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보드게임 뿐 아니라 더 다채로운 놀이문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팀 결속력도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맞는 규모로만 오픈모임을 열 수 있었기에 괄목할만한 영향과 효과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만족도 및 사후설문조사 결과 참여한 청년들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넷플릭스, SNS, 게임, 수면으로 평소 여가시간을 즐긴다고 답한 외부 청년 5명과 제1회 올나잇 오픈모임을 진행한 결과 ‘농땡이 연구소 오픈 모임을 통해 평소보다 가치있게 여가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모두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땡이 연구소 오픈모임 참석 후,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전원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 농땡이연구소

## ● 느낀점

내부 구성원 뿐 아니라 외부 청년들과도 교류하고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오픈 모임을 통해 기존 팀원 외 지역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연결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노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생긴 것이 좋았고,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모임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약 6회 이상의 정기적인 팀모임과 1회의 오픈모임을 기획 및 운영하며 팀원들의 역량도 발전했고, 전반적으로 모임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더 많이 오픈모임을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그냥 동네의 작은 친구들 모임이었던 농땡이 연구소가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도모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과 건강한 놀이문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오픈모임을 개최할 것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모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처음 놀이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보다 다양한 보드게임을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드게임 추천이나 방법을 공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알릴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사용, 설문조사 등 온라인 참여 콘텐츠 또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단순히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여가’, ‘쉼’에 대한 고찰, 끝내 삶에 대한 태도를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독립출판물 형태의 무언가를 출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면 더욱 많은 지역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번 오픈모임을 기반으로 더욱 풍성한 교류의 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드게임 뿐 아니라 <청년이, 해봄>을 통해 만난 다른 팀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지속 가능한 놀이 문화를 탐구하고, 규모를 확장시켜나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N사이드

## ● 소개

지속적인 청년 모임을 통하여 청년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활동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커뮤니티

## ● 해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독서 토론과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서토론은 한 달에 1~2회 정기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서로의 균황과 소식을 나누며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한편, 모든 회원들의 추천 도서로 독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체험 활동으로는 회원들의 희망 문화 체험인 방탈출 체험과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캠핑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독서 모임에 참여한 덕분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준비 뿐만 아니라 시사상식을 답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진로 선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회원이 토론을 준비하며 책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 N사이드

## ● 느낀점

독서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에 벗어나서 토론 진행이 가능한 점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울함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었는데, 화상으로나마 친구들을 만나며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점도 좋았습니다. 이전 모임과 비교하여 보면 참여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긴밀한 토론이 가능했고 회원들 간 친목이 활성화된 장점도 있었습니다. 한편 책 선정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자신이 발제를 맡지 않은 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모임이 적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이후에도 직장인 모임과 학생 모임을 별개로 운영해, 두 모임간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모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하여, 이후 모임부터는 우수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모임의 지속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여횟수 뿐만 아니라 그 날의 MVP 회원 선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고 마지막 회차 때 상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천대 소속 학생으로 팀원을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 똑소리 — 독서의 소리

## ● 소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선택하여 함께 읽고 관련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단순히 앉아서 하는 독서의 단계를 넘어서, 삶을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서 커뮤니티

## ● 해봄

건강/생활/여가의 3개 분야에서 책을 선정하여 총 7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목표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25명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7회차 활동에 총 6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정우의 『걷는 사람』을 읽는 기간 동안에는 만 보씩 걷고 이를 인증하기도 했고, '하정우 산책 추천 코스'를 산책 및 등산하기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는 도중에는 감사 일기, 명언 필사, 실천 노트 적기와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를 읽는 기간에는 책을 참고하여 각자 요리를 만들어 보는 요리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하여 줌 도서관을 열어 방구석 책읽기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행동력 수업』을 읽는 동안은 똑소리에서 기획한 '나 알아보기 Q&A' 작성을 진행해 보았고, 『애착수업』을 읽는 기간에는 실제 전문 상담사를 모시고 심리 검사와 고민 상담,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치유 편지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 똑소리 —— 독서의 소리

## ● 느낀점

코로나 기간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별 생각없이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며 ‘독서’와 ‘실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단순히 혼자서 책을 읽고 끝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끝나던 이전의 독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 책의 내용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같이 실천해보면서 하나하나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똑소리 활동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변화와 좋은 영향력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우수 참여자의 참여소감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활동인 ‘방구석 책읽기’ 참가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 신청서를 아주 열심히 써서 냈어요. 그리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참여했던 독서 동아리와는 정말 다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독서를 하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깨달음을 나누고, 거기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알아갔고, 심지어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목표했던 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후기였습니다.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치고 싶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준 참여자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앞으로 똑소리는 단순히 하나의 동아리 활동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독서’라는 큰 틀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고민을 토로하며 위로받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판이 되도록 더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와 함께 활동할 기획단 층을 더욱 늘려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으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자들에게 기획단으로 활동하면 얼마나 좋은지 더욱 어필하는 장치를 함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 선덕선덕 우리산행

## ● 소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진 지금,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도전 할 수 있는 산을 오르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한 커뮤니티

## ● 해봄

청년이 해봄 활동으로 주어진 약 반년의 기간 동안 성남시 누비길 코스에 해당하는 산을 등반하기로 계획하였고, 적어도 남한에서 등산하면 빠질 수 없는 한라산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누비길 코스 총 7개 구간 중 7개 등반 및 한라산 백록담을 완등하고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웠던 7월에는 등산 대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홈 트레이닝이나 실내 클라이밍에 도전해 보며 새로운 체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코로나 상황으로 선뜻 만나지 못했겠으나, 선덕선덕 우리산행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함께 등산을 가고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처음 우리가 목표했던 것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임으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반부에는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다른 팀과 함께 등산을 가는 계획은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했던 초기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 페이스를 맞춰 등반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 선덕선덕 우리산행

## ● 느낀점

함께 등반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경험이 어쩌면 작아 보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스템프가 찍힐 때마다 성취감을 맛보는 뿐듯한 활동이었습니다. 초반에 다녔던 산은 우리가 사는 지역 근방에 있고 이름이 익숙했던 산이라 준비가 미흡했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잘 다녀왔지만 자칫하다가는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다칠뻔 한 상황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조금씩 경험들이 쌓여서 차근차근 등산 용품도 사용해 보고, 어떻게 하면 짐을 최소화하여 가볍게 산행 할 수 있는지도 깨달아 가면서 나름 프로 등산러들이 되어가는 모습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들이 여럿 있는데, 산을 오르는 내내 송충이와 달지 않으려고 힘들게 올라갔던 날도 있었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 뱀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산에 다녀가더라도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자연이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선덕선덕 우리산행 팀은 이후로도 성남시 누비길 외에 가까운 수도권의 등산로부터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산행길을 하나씩 탐방하는 계획을 짜 볼 생각입니다. 너무 뜨거운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안전에 유의해서 실내 스포츠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신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으로 산행을 선택했지만, 한번 해봤던 실내 클라이밍 또는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스포츠에도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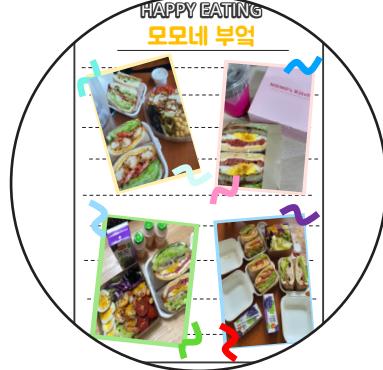


### ● 소개

테마가 있는 식도락 여행을 하면서 숨겨져 있던 성남 시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탐방 및 팀 활동을 통해 협동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커뮤니티

### ● 해봄

팀원들의 의견과 방문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를 참고하여 선정한 성남시 내 식당을 탐방한 후, sns 업로드 및 성남시 맛집 지도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맛집 지도를 제작하면서 팀원들의 전공인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양학적인 판단도 포함 시켜 보다 완벽한 맛집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여파로 계획했던 일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활동으로 진행하며 속상해 하던 시기도 있었고,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어 그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맛집 지도 책자 제작의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어울릴 맛집을 정하고 그 식당의 주메뉴, 분위기, 꿀팁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19 상황 이기에 생각보다 많은 식당들을 다녀보지 못했고 다녀오고 난 뒤에 폐업을 한 가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활동 기간 외에 그동안 다녀왔던 식당과 카페를 포함하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맛봤던 식당 위주로 식당 후보를 추렸고 정해두었던 카테고리를 생각하며 총 7개의 식당을 선정하였습니다. 급작스럽게 계획이 바뀜에도 원래 계획했던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단기간에 새로운 계획을 짜낸 우리 팀을 보면 앞으로 더 큰 범위의 활동으로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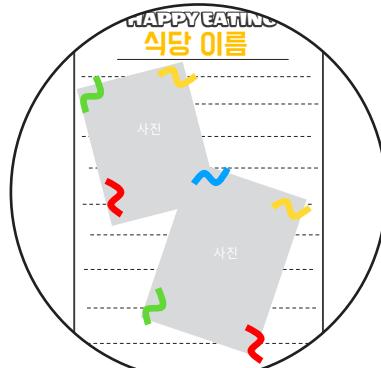
# 김이박상궁 — 맛따라 멋따라

## ● 느낀점

7월 중순부터 코로나 19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4단계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팀원들과의 맛집 탐방과 메뉴 재해석 활동이 어려워진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해둔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생겨 아쉬웠으나, 대신 맛집 지도 책자 작성 시작 시기를 앞당기면서 활동을 대체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활동 지원부터 기획 및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협동과 경청의 자세, 다양한 활동을 생각해내는 기획력까지 두루두루 성장시킬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영양학적인 정보 역시 책자에 담아낼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의무적으로 해결하는 걸지도 모르는 식사 한 끼 속에도 얼마나 큰 영양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성남시 내 여러 식당을 소개할 수 있어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우선 팀의 지속을 위해 가천대학교 교내 자율 동아리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성남시 내 대학 연합 동아리로 범위를 확장하여 성남시 맛집 탐방 동아리로 규모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단순 맛집 탐방에서 그치지 않고 식도락 여행의 형식으로 성남시를 소개하는 큰 주제를 갖고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후 책자 제작 활동은 더 가독성이 높고 체계화되어 있는 시안을 마련하고, 정보에 있어서도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섭외하여 음식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책자 외에 카드뉴스의 방식으로도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SNS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 아우름 — 인(人)얼리티

## ● 소개

MBTI와 같은 심리검사를 기반으로 하여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함께 알아가면서 다양한 성격 유형 소유자들이 함께 소통해보는 커뮤니티

## ● 해봄

5월 1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모여 실시한 MBTI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성격유형의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돋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최초 계획 당시에는 MBTI 심리검사와 함께 영화 관람, 독서, 외부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계획했지만,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른 모임제한으로 대부분의 활동은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MBTI 심리검사, 방탈출, 줌회식, 마니또 활동을 선별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총 14회의 모임을 추진하려 했던 초반의 계획과 달리 조별 모임을 포함하여 총 7회의 활동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활동을 통한 팀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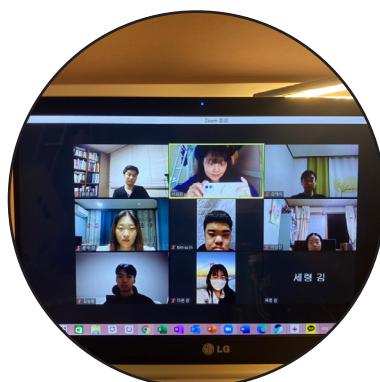
# 아우름 — 인(人)얼리티

## ● 느낀점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팀원들의 성향이 개개인의 MBTI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MBTI군에 속한 팀원들이 유사한 성향을 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MBTI가 어느정도 성향 분석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MBTI별로 똑같은 활동 및 과제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소년 지도 및 관련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팀원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찰하게 되어, 서로 처음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활동 마지막 즈음에는 마니또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마니또를 맞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 거의 맞추는 걸 보고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본래 기획된 14회 중에 7회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내·외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코로나로 인해 2년째 온전한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팀원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팀원들이 조직 내 협동심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활동이 마무리된 현재로써는 함께 있으면 서먹하고 어색한 기류만 가득했던 기존의 분위기와 달리 훨씬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팀 내 분위기는 훗날 다양한 공모전 활동과 획기적인 청년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아우름은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로써는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 청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참여하고, 청년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활성화하여 mz세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활동을 하려 합니다. 이번 활동을 직접 참여해보고 운영되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종장기 프로젝트 및 활동 부문을 기획하고 고민해보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아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김장권장

## ● 소개

문화예술체험, 스터디, 운동과 같이 평소에 혼자서는 쉽게 해보지 못한 활동들을 팀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보기 위한 커뮤니티

## ● 해봄

코로나 19 확진자의 추세와 안전을 고려해 5월에는 비대면 화상게임과 비대면 자격증 취득 공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비대면 활동으로는 워크온 걸음 걸이 수 계산 앱을 사용해 각자의 운동량을 확인해보기도 하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7월과 9월에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1, 2차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일주일 동안 나온 쓰레기들을 모아 한눈에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보면서 그동안 환경에 무심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절약 활동 끝에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유지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식 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포트리 파티가 2차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활동으로는 용인 한국 민속촌, 페인팅 룸, 향수 공방을 방문해 평소에 하기 힘든 체험을 함께 해보았고, 활동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을 활용해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록하는 포토북을 제작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 김장권장

## ● 느낀점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취향이 비슷한 팀원들과 서로 의견이 잘 맞았던 점이 좋았습니다. 활동을 항상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했다는 점이 제일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 모두의 MBTI가 I인 만큼 모두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지만 활동을 한 후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김장권장 활동 이후 학교에서 장애학우 도우미, 동아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게 된 팀원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집에만 고립되어 있었는데 향수 제작, 양궁과 사격체험, 콘셉트를 잡고 한복 입고 민속촌 탐방하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한번도 해보지 못했고,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함께 활동하며 해볼 수 있었던 것이 뿐만 하기도 했고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항상 환경보호를 해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기성세대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직접 실천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활동이 끝나더라도 계속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활동 내에서 자격증 취득 모임을 진행했던 것처럼, 서로의 자기 계발을 위한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과제에 대한 고민거리 를 해결하기 위해 다같이 머리를 싸매기도 하고, 학교가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즉석에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팀원 사이의 소통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간 날 때 맞추어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문화 생활을 같이 할 파트너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만약 힘들거나 조언이 필요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피드백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못해본 활동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집 주변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보다 큰 스케일로 활동해보고도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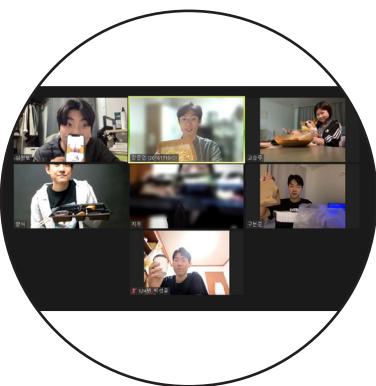
# 마음지기

## ● 소개

다양한 문화 체험을 기반으로 문화 기획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는 커뮤니티

## ● 해봄

활동 계획과 마무리 작업을 제외하고 총 2회의 대면 활동과 2회의 비대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활동으로는 손상원 클라이밍 짐에서 일일 체험을 함께 해보기도 하고, 피컬러브랜딩센터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대면 위주의 계획이 많았으나 그렇게 진행해 보니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잘 참여하지 못하는 멤버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해 진행했습니다. 직장 일로 바쁜 멤버를 위해서 어떤 활동은 그 멤버의 휴일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면이 부담스러운 멤버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으로는 가죽 공예 KIT를 배송 받아 각자의 집에서 지갑이나 여권케이스를 제작해보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각자의 집으로 시켜서 함께 얼굴을 보며 식사하는 배달 미식회 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램이 점점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멤버들도 의견을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내게 되었습니다.



# 마음지기

## ● 느낀점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이런 활동들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못해본 활동들을 해보니,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가 납니다. 한편 직접 활동을 해보니 ‘이건 나와 잘 맞는구나’, ‘나와 잘 맞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달 미식회 때, 질문 카드를 통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가벼운 질문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조금 무거운 질문들에 답하면서는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깊은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보다 내 안에 고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지기는 또래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활동가인데, 정작 우리 멤버들끼리는 서로의 고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앞으로 청년들을 향한 활동도 좋지만 우리를 먼저 돌아볼 줄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위드 코로나가 다가온 만큼, 온라인 활동가에서 오프라인 활동가가 되어야 하는 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지기의 주된 활동이 문화기획인 만큼, 문화기획도 오프라인 형태로 새롭게 기획해볼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Zoom을 통해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센터나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마음지기는 기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기와 2기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1기와 2기는 서로 잘 알지 못하고, 면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지기 1기와 2기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1기와 2기가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음지기를 구성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1기와 2기가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 리더를 선발해 멤버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것도 고려해 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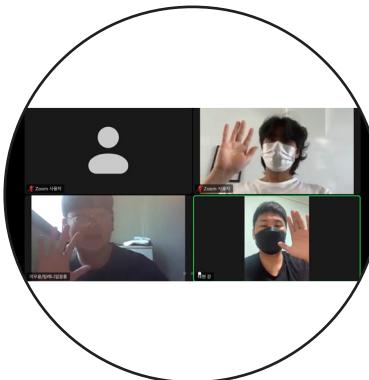
# 밀레니얼끌롱

## ● 소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아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준을 알아보고 다른 청년들과 나누기 위한 커뮤니티

## ● 해봄

코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핸드빌딩으로 화병 만들기, 직접 향기를 맡아가며 자신만의 향수를 설계하기, 다 가가기 어려운 다도 도전해보기를 진행한 후 팀원 전원이 참석한 홈파티를 진행했습니다. 화병 만들기의 경우 무늬, 형태 그리고 색깔까지 모두 선택하고 직접 입히는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서 도자기 빚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강사님의 도움 아래에 도자기 제조 공정과 여러 기법에 대해 배우고 기법들의 특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취향과 예술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본래 마크라메 체험을 계획했으나 손에 부상을 입은 팀원이 발생하여 한 손으로도 충분히 체험이 가능한 향수 공방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두 향기로 코를 정화하는 작업을 중간중간 하면서 신중하게 체험에 임했습니다. 다도 체험의 경우 두 가지 차와 두 가지 다식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며 다도의 기본예절부터 선입견, 여러 차의 종류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밀레니얼끌롱

## ● 느낀점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참여한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각각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희의 관계가 더욱 돋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이라는 것에 처음 참여하는 팀원들은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서류작성도 해보고 글을 쓰는 경험을 가졌고 글을 적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 하는지 글쓰기에 관심이 생겼고 이로 인해 독서를 즐기게 된 단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팀원은 특히 도자기 만들기가 소요시간이 엄청났지만 그 시간내에 작은것에 몰두하여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하다고 느꼈고 이러한 점을 취업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팀원은 평상시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여 카페를 즐겨가며 커피맛을 느끼는데에 여가시간을 두고 있었는데 다도를 경험해보고 나서 다도의 분위기와 향에 취해 다도를 하기 위해 다른 찻집을 찾아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혀보다는 코로 눈보다는 귀로 느끼는 차라는 존재가 사회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친구에게 적막함을 선사해 주었고 집중하고 눈을 감아야 느껴지는 향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 또한 자신에 온 신경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이 팀원에게 새로운 취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경험으로 얻은 내적양식이 쌓여 이후의 단원들의 미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준비하거나 시작하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에 청년이 해봄은 활동은 잠깐이 나마 여유를 느끼게 해주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밀레니얼 끌롱은 팀의 발전이나 확장에도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지속에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해봄을 참여하며 기획하고 많은 것들이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고 빼돌어진 곳이 많았지만 이 또한 저희 커뮤니티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게 해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하며 온택트,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도태되지 않고 저희 밀레니얼 끌롱도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에는 많은 비대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팀의 지속과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청년들에게 많은 공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밀레니얼 끌롱이 되고 더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타 커뮤니티와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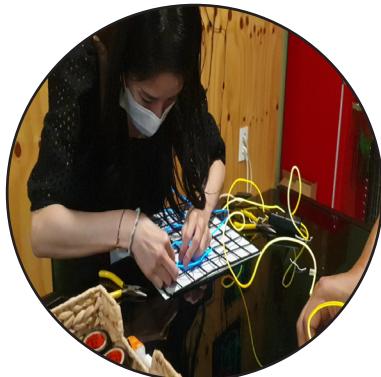
# 삼태원 클래스

## ● 소개

2013년에 태원고 교생으로 만난 30대 성남 토박이 청년들이 각자 겨울 같은 현실을 살아내고, 함께 30대의 현실 고민과 애환을 공유하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인 원데이 클래스 커뮤니티

## ● 해봄

성남 소재의 원데이클래스 공방들을 섭외하여 각자의 위시리스트에 담겨 있던 활동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의 셀프 치유를 경험하는 한편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혜란의 로망이었던 ‘카페 창업’을 위한 첫 스텝으로 수정구 위례 소재 ‘소녀공방’에서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해 보았고, 시험 준비로 불안한 다회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그니처 향수 제작을 위해, 분당구 정자동 소재 ‘센트유니크’에서 조향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오면 나래바처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보윤을 위해서는 분당구 서현동 소재 ‘청년공방’에서 네온사인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했습니다. 클래스 별 촬영 영상 취합 및 콘텐츠 제작은 현재 진행중이며, ‘30대의 현실’ 도입 영상, ‘30대의 희망’, ‘30대의 로망’ 마무리 영상 역시 촬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각각 성남 소재의 스터디 카페, 사진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촬영했으며 글램핑 마메큐장에서 활동 마무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 삼태원 클래스

## ● 느낀점

기존 친목 위주로 오래 지속된 모임이었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뭔가를 이뤄나가는 경험은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았고, 중간 발표에서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면서는 다양한 활동과 그 활동이 지닌 선한 영향력에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 부여를 공통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더 생산적인, 그리고 더 좋은 영향을 사회에 줄 수 있는 활동들도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팀원 각자의 상황이나 성향이 전혀 달라 서로의 상황과 그로 인해 비롯된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촬영을 하자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경험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으며,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 ● 앞으로의 방향성

기존 오랜 시간 지속되던 모임인 만큼 이후로도 와해 없이 모임을 지속해가려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함께 치유적 활동들을 하며 더 돋보이지 않은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함께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현재 위치와 이후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가 기준에 갖고 있던 고민에서 벗어나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향후에도 각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고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이봄에서 지원받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주변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  
운  
이



# 프로젝트 리좀

## ● 소감

청년지원센터 프로젝트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 두 권의 독립출판물을 발간하였는데, 그 경험을 기반으로 활동집을 제작해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활동집 제작은 여러 사람의 활동 후기를 모으고, 몇 개의 특성으로 글들을 분류하고, 다시 하나로 묶으며 재편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독립출판물 발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이번 활동집 제작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 지난 성장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에 속하여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 온 팀원들과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동의 장점이 다른 일로도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집을 편집하며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성남 내에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놀라움과 각 커뮤니티가 열심히 이룬 각양각색의 활동에 관한 반가움이었습니다. 활동집 제작을 위해 모인 원고는 한 해 동안 스물여덟 개 팀이 성남에서 보낸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각 팀이 보낸 시간을 엮기고 엮으며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알찬 한 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느 때보다도 단절감과 고립감이 큰 시기였던 만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목표를 위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추세가 악화됨에 따라 활동 진행에 있어서도 대면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수정해야 했던 팀들이 많았으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구끼리, 동료끼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고군분투하였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비대면 시대 속에서도 가까워지고, 각별해진 사이들 역시 글 속에서 자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집에 수록된 다양한 활동들은 청년 세대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세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활동집을 엮으며 글을 통해 마주하게 된 청년들만 하더라도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

을 개발하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프리랜서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에는 연령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고, 청년이봄 활동집인『해봄집』이 이러한 면을 프리즘처럼 분광하여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청년 활동의 다양성, 직업 혹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확장성, 각 팀의 흥미가『해봄집』을 통하여 다른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팀의 개별 활동을 아우르는 특성 중에서는 복지와 환경에 관한 활동 역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회 내 사각지대를 환하게 비추어 주는 활동들이었기에 특히 반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활동집을 통하여 그 빛이 더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각 팀이 보낸 시간을 읽어 본 경험은 다가올 시간에 관하여서도 기대감과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글을 엮으며 만나 보고 싶은 팀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기회가 된다면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은 커뮤니티도 있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지원 사업 기간 이후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만큼, 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 다양한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사업을 지원하였던 다른 팀들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 이후에도 진행하고 있을 활동에 참여하여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로는 활동집을 통해 팀 리즘의 활동과 독립출판물『아주 사적인 편지』를 알게 된 분들 역시 비슷한 호기심과 관심을 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들이 청년 센터를 구심점 삼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가 그 활동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으시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리좀 팟캐스트 바로가기 ▷ ▷

# 해봄집

## 2021년 성남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활동집

발행 2022. 1. 21

제작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기획 프로젝트 리좀

디자인 서유리

편집 김초희

교정/교열 김초희



 공동체

성남마을직대딩 (공부하는 직장인)	리좀(서간문 수필집 제작)
모두의 마을(도시재생)	청춘기록(여행 에세이 제작)
김치 카레(외국인 문화 교류)	하느바람(음악 밴드 운영)
사맛(브라이덜 샤워 기획)	너랑(영화 색채 콘텐츠 제작)
장례희망(장례 문화 인식 개선)	아다도(음료 레시피 개발)

## ◆ 문화예술

 복지/환경

re:sight(시각장애인 의류 문화)	농땡이연구소(보드게임)
루케테(자립지원청년 콘텐츠)	N사이드(독서 및 문화 체험)
D.N.A(1인가구식습관 개선)	똑소리(독서기반 취미 공유)
프룻프룻(못난이 농산물 제품)	선덕선덕 우리산행(등산)
gather, together!(업사이클)	김이박상궁(맛집 탐방)
오르막길 내리막길(줍깅)	아우름(MBTI 기반 취미 공유)
줍줍이(줍깅)	김장권장(취미 공유)
견청지간(유기견 봉사활동)	마음지기(문화기획팀 취미 공유)
	밀레니얼끌롱(취미 공유)
	삼태원클래스(취미 공유 영상)